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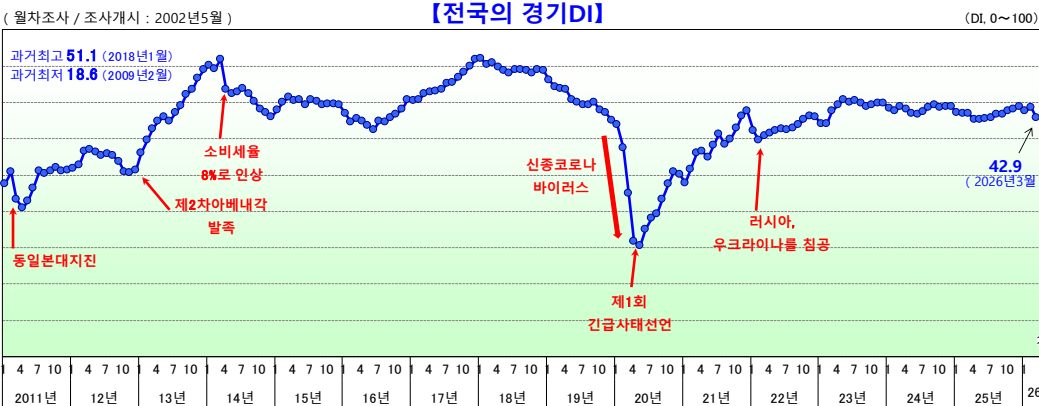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중동정세가 긴박해지며 크게 악화

~ 2년 6개월 만에 모든 규모·업계·지역이 모두 악화 ~

(조사대상 2만 3,349사, 유효회답 1만 312사, 회답율 44.2%,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6년 3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1.4포인트 감소한 42.9로,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로 가고있었으나, 원유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및 불안한 행방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고조되는 불확실성 가운데 하방리스크를 동반하면서 내림세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2년 6개월 만에 전 10개 업계 및 전 10개 지역에서 악화되었다. 중동정세로 인한 원유가격 급등이 운수 비용 증대를 초래하여 폭넓은 업종에서 악재가 되었다. 게다가 원유에서 유래하는 재료의 공급이 불안정하게 된 것도 악영향으로 작용하였다. 규모별로는 11개월 만에 전규모가 모두 악화되었다. 「중소기업」은 『제조』 및 『운수·창고』의 부진이 눈에 띄었다.
- [이번달의 토픽스] 원유가격상승으로 인한 부담증가 외에, 관련자재의 조달난 및 물자이동의 정체, 소비자들의 방어적인 소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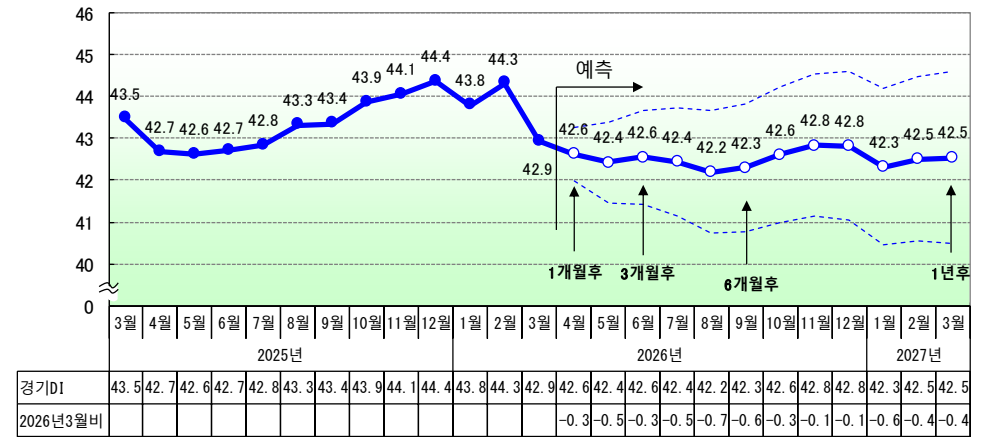
< 2026년 3월의 동향 : 대폭 하락 >

2026년 3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1.4포인트 감소한 42.9로,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로 가고 있었으나, 원유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및 불안한 행방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3월은 긴박해진 중동정세의 영향이 미친 원유고와 공급불안이 연료비 및 물류비, 원재료 비용을 상승시켜 모든 규모·업계·지역에서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운수·창고 및 소매가 어렵고, 가격전가 지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익환경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한편 악재가 많았던 3월로서는 매출 및 생산·출하량은 견조함을 유지했던 한편, 인바운드 및 붐방향 수요는 하락을 떠받치는 요인이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내림세 >

향후는 원유고가 기업수익 및 물류비, 가계부담을 압박하고, 정책금리 인상 및 장기금리 상승도 설비투자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성장투자 및 계속된 임금인상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받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경기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급격한 엔저(円低)진행 및 주가 급락, 중동정세나 중일(中日)관계의 불안정화가 강해지면 체감경기는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의 경기는 고조되는 불확실성 가운데 하방리스크를 동반하면서 내림세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